

## 요약

2022년 5월 중국 정부는 공적건강보험 통합 운영시스템인 '의료보험 정보플랫폼' 구축을 완료함.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은 '의료보험 정보플랫폼'을 통해 민간사업자와 정보 공유를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보험 정보플랫폼'에 의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면 민간보험회사는 보험계리, 상품개발, 보험사기 예방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금 직접 지급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22년 5월 중국 정부는 공적건강보험의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통합 운영시스템인 '의료보험 정보플랫폼(医保信息平台)' 구축을 완료함
  - 중국 공적건강보험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도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1998년 도입)과 도시와 농촌 주민(非근로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도농 주민 기본의료보험'(2018년 도입)으로 구성됨
    - 2021년 기준 95% 이상의 중국인(13.6억 명)이 두 가지 공적건강보험 중 하나에 가입되어 있음
  - 2018년까지 공적건강보험 운영시스템들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MOHRSS),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 민정부(MCA) 등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있었으나, 공적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국가의료보장국(NHSA)<sup>1)</sup>이 신설되면서 새로운 통합 운영시스템이 필요하게 됨
    - 기존 운영시스템들의 코드 체계, 자료 항목, 용어 등의 차이로 인해 운영시스템들을 유지하는 것보다 새로운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음
  - 2018년 이후 중국 정부는 의료보장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공적건강보험의 온라인 결제 방식 제공 및 보험금 직접 지급을 포함한 의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개혁 목표 달성에도 새로운 운영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중국 정부는 의료보장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전자의료보험카드<sup>2)</sup> 발급을 통한 온라인 결제방식 제공(2019년), 보험금 청구 증명 서류 발급 없는 보험금 직접 지급(2020년)을 추진함
  - 2022년 5월까지 '의료보험 정보플랫폼'은 중국 전역에서 40만 개 의료기관, 40만 개 약국 정산시스템과 연결을 완료하였으며 13.6억 명의 공적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의료보험 정보플랫폼'은 여러 개 하위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정보 조회, 지급결제, 공공서비스와 같은 기초 서비스 기능 외에도 보험금 누수 방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의료비 지원 등 혁신적 기능을 보유함<sup>3)</sup>

1)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은 국무원 산하 직속 부처이며 한국 건강보험공단과 비슷한 기관으로 공적건강보험 외에도 출산보험, 의료구조를 관리함  
 2) 의료보험카드는 공적건강보험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적립하는 개인 계좌와 연결되며, 공적건강보험 가입자는 체크카드처럼 의료비 및 약품비 결제에 의료보험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3) 德阳传媒网(2022. 5), "覆盖13.6亿参保人!全国统一医保信息平台已全面建成"

- ‘의료보험 정보플랫폼’은 내부 통제, 의료보험 업무, 정보관리, 타지 진료<sup>4)</sup>관리, 의료서비스 가격관리, 약품과 소모품 집중구매, 자금운영과 심사, 신용평가, 의료보장 스마트 감독관리,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비롯한 하위시스템을 포함함
    - 일부 하위시스템은 구축되었지만 서비스 제공자가 결정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지 않았음
  -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은 정보관리 하위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적건강보험 가입정보와 이용정보 등의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타지 진료관리 하위시스템을 통해 타지 진료비(보험금) 직접 지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의료보험 정보플랫폼’ 출범 이전에 공적건강보험 가입자는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공적 건강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음
  - 보험금 누수 방지는 의료보험 스마트 감독관리 하위시스템에 의해 이용자의 처방과 약품 남용, 허위진료 행위에 대한 감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의료비 지원은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하위시스템을 통해 취약계층을 식별해 의료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음
-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은 향후 ‘의료보험 정보플랫폼’을 통해 민간보험회사를 포함한 민간사업자와 정보 공유를 추진할 계획임<sup>5)</sup>
- 2021년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은 「데이터 안전관리 방법」과 「사이버안전과 데이터 보호 작업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해 데이터 교환 및 정보 공유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의료보험법」(의견수렴안)을 통해 민간보험회사를 포함한 민간사업자와의 정보 공유를 공식적으로 허용할 예정임
    - 「의료보험법」(의견수렴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를 통해 향후 중국 정부의 공적건강보험 관련 정보 공유에 관한 규제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음
  - 2021년 8월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은 업무계획에서 향후 ‘의료보험 정보플랫폼’과 ‘민간건강보험 정보플랫폼’을 활용해 민간보험회사와 정보 공유를 추진할 것으로 발표함
    - ‘민간건강보험 정보플랫폼’은 2016년 세제적격 건강보험 활성화 조치로 구축되었으며 민간보험회사를 위해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있음
- ‘의료보험 정보플랫폼’에 의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면 민간보험회사는 보험계리, 상품개발, 보험사기 예방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금 직접 지급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21년 11월 중국 랴오닝 다롄(大连)에서 민간보험회사가 현지 의료보장기관과 정보 공유를 실시하였으며, 국가의료보장국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건강보험금 직접 지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sup>6)</sup>
    - 민간보험회사가 국가의료보장국 다롄지사에서 건강보험 상품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건강보험금 직접 지급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환자가 전체 의료비에서 공적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이 보상한 의료비를 뺀 의료비만을 지급하면 됨

4) 타지 진료는 환자가 거주지에서 진료받지 않고 더 나은 진료를 받기 위해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진료받는 행위를 의미함

5) 医疗保障局(2021. 8), “国家医保局：推动规范、高效、安全的数据交换和信息共享机制”

6) 发改委(2021. 6), “大连市率先实行医保商保一站式结算”